

## 또래 따돌림과 심리사회적 부적응<sup>1)</sup>

한 종 철                      김 인 경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또래 따돌림 행동에 관련된 심리사회적 발달 수준과 정서 및 행동적 특성을 알아보려고 했다. 서울 시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생 1212명 중에서, 또래 따돌림에 대한 자기보고식 및 또래 거명 행동평가에서 일관된 행동특성을 보인 450명(가해, 피해, 가해/피해, 비교집단)을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발달(SIQYA), 정서 및 행동 평가(CBCL) 수준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비교집단에 비해 따돌림 행동과 관련된 학생들의 심리사회적 발달 수준이 낮았다. 그러나, 가해집단은 다소간의 자존감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피해집단은 전형적인 부적응 문제를 보였고, 특히 가해/피해 집단은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드러나 가족관계에서 더욱 부정적인 상태이어서 큰 심리적 위기를 겪고 있었다. 또한, 가해집단은 직접적인 신체적 공격행동이 많았고, 피해 집단은 자기통제가 부족하거나 과시적 행동을 하는 경향을 보여 미성숙함을 드러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앞으로 집단 유형에 따른 중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차별화된 접근을 취해야 함을 함축한다.

같은 반 급우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청소년의 자살 사건이 신문지상에 보도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최근 들어 청소년들의 학업 및 심리적 적응과 관련된 문제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극단적 형태의 또래 집단 따돌림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또래 관계는 잠재적으로 이들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학교상황에서 또래따돌림이라는 병리적인 현상은 또래 관계와의 적응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최근 이 문제에 대한 우리 학생들에 대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또래따돌림과 심리적 부적응

가족구조의 변화로 아동에 대한 부모의 감독이 소홀해지는 추세이다. 또한 아동들은 과거에 비해 어린

1) 이 논문은 1998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시기부터 지역사회의 조직화된 또래집단(탁아소, 유아원, 방과후 공부방, 과외 활동 및 캠프활동 등)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아동 및 청소년들은 또래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의 발달에 유용한 긍정적 경험과 강화를 얻을 수도 있지만, 일부의 아이들은 또래관계로부터 부정적이고 불만스런 경험을 하기도 한다(다꾸마 다케도시, 1999). 이들의 경우에 또래관계는 그 자체로 하나의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아동은 또래관계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감정과 경험을 통해 자신에 대한 다양한 자아개념(self concept)을 형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아동의 심리적 발달과 사회적 적응에도 그 영향을 미친다(Asher, 1990).

아동 및 청소년이 또래관계에서 적응에 실패할 경우,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내의 집단 따돌림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따돌림은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을 가져오기도 한다.

아동기에 발생하는 또래 따돌림은 학령기 초기에는 학교거부 행동과 관련이 있으며,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는 학교 부적응, 등교 거부와 무단결석, 폭력 등과 관련이 있었다(Kupersmidt & Coie, 1985; Kupersmidt, Coie & Dodge, 1990). 많은 아동이 심각한 또래 관계 문제를 호소하고 있으며, 자신의 학급 내에서 친한 친구 이름을 적어내도록 했을 때 친한 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상당수 있었다(Bukowski & Hoza, 1989; Hymel & Asher, 1977). 그리고 또래관계 문제를 가진 학생의 비율은 장애를 가진 아동(정신지체, 과활동성, 학업부진)에게서 더욱 높았다(Gresham, 1988; Henker & Whalen, 1989; Taylor, Asher, & Williams, 1987).

또한 이런 문제행동을 장기적 관점에서 조사한 연구(Coie & Dodge, 1984)를 보면, 집단 따돌림을 당한 아동의 약 30 ~ 50%가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러한 따돌림을 받았다. 이런 아동이 새로운 집단에 소속되어 이전의 따돌림 경험을 극복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아동이 새로운 집단의 또래들에게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았다.

학교상황에서 집단 따돌림에 관련된 적이 있는 아동은 성장한 후에도 적응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어린 시절에 또래 따돌림을 경험한 성인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조사한 연구를 보면(Kupersmidt, Coie &

Dodge, 1990), 또래로부터 거부당하고 따돌림을 당한 성인의 경우, 그득, 우울, 사회적 위축 등 내면화된(internalizing) 장애를 보인 반면, 동료를 따돌린 경험이 있는 성인의 경우는 범법행동이나 폭력 범죄와 관련된 외현적(externalizing) 장애행동을 보였다(Kupersmidt, Coie & Dodge, 1990; Magnusson et al, 1983).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아동 및 청소년 시기의 또래관계는 장, 단기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겠다.

#### 따돌림 가해 및 피해자의 행동특성

따돌림에 대한 용어 정의는 여러 각도에서 논의 되어왔다. 그 중 현재 여러 학자들의 동의를 얻고 있는 Olweus(1993)에 따르면 수동적 학교폭력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는데, 특정한 한 학생을 학급 내에서 은근히 집단적으로 반복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따돌리는(부정적인 행위를 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현상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게서 많이 나타난다(Olweus, 1993). 구체적인 가해행동의 유형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뿐 아니라 언어적 폭력과 물리적 접촉없이 가해지는 괴롭힘을 포함한다.

이런 또래집단의 따돌림은 10대 청소년 집단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이 현상의 발생을 이 대체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수록 높아지다가 중학교에서 절정을 이룬 후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있다(이훈구, 1999). 따라서 이런 따돌림 현상을 일시적인 청소년기의 발달적 현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그 근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거나 가하는 학생들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이런 행동과 관련된 개인적 속성이 존재한다. 따돌림을 가하는 개인의 주요 속성으로 공격성과 파괴적 행동, 협동심 등의 유무가 주요 결정인자로 작용하고 있다(Asher, 1990; Coie, Dodge, & Kupersmidt, 1990). 연령에 따라 이런 개인적 속성은 보다 세분화되고 청소년기에 이르러 특유의 신체적 폭력 이외에도 언어적 폭력 등으로 구체화 되고 있다. 또래로부터 거부당하는 아동은 일관되게 사고와 행동에서 원만한 또래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개인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Gottman, 1977; Hartrup, Glazer &

Charlesworth, 1967).

따돌리는 아이의 전형적인 특징은 동료학생에 대한 폭력인데, 이들은 폭력과 폭력적 수단의 사용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충동적이고 타인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다.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이 없고 남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강한 신체 조건을 갖추고 있다(Olweus, 1978). 또한 이들은 또래들 간에 어느 정도의 인기가 있으며 자기를 지지하고 추종하는 2, 3명과 소집단을 형성하고 있어서 자신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다(Olweus, 1978; Pulkinen & Tremblay, 1992).

우리나라 연구(김인규, 1996)에서 때리는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으스대기를 좋아하거나', '폭력적인 아이들과 사귀거나', '교사가 포기한 아이들'이었다. 친구를 때리는 이유를 '쳐다봐서', '괜히 튕다', '말을 듣지 않고', '운이 없어서'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들은 자기중심적이고 독선적인 사고와 판단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있었다. 친구를 때릴 때의 기분과 맞는 친구의 기분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행동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맞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즉, 또래를 따돌리거나 또래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아이들은 사회인 지적 영역의 미성숙, 특히 도덕성과 타인에 대한 조망수용과 공감 능력의 부족 등 사회적 관계에서 문제가 될 속성을 지니고 있었다.

반면,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는 비인기 아동인 경우가 많다. 특히 신체적 외모의 부정적 특징에서부터 인지적, 정서적 발달이 미숙하거나 사회적 관계 유지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Asher, 1990). 아울러 또래로부터 거부당하는 이런 아동은 학교생활에서 고독감이나 우울을 많이 경험하고(Asher, 1990; Asher & Wheeler, 1985), 사회적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더 많이 호소했다.

Olweus(1993)가 정리한 따돌림을 당하는 아동의 행동특징을 보면, 이들은 신체적으로 작거나 힘이 약하고, 소심하고 예민하며 수동적이고 수줍어하여 울기도 잘한다. 자신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불안과 우울, 그리고 낮은 자아존중감을 경험한다. 그리고 상대의 공격에 대해 비공격적이고 반발을 하

지 못하며 자기주장을 하기가 힘들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연구(박경숙 등, 1998; 이춘재·곽금주, 1999)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찾을 수 있는데,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는 신체적으로 왜소하고 허약하며 지능이 떨어지고 말이 없고 소극적이며 남과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가치감도 낮았다. 이들은 사회적 능력도 미숙하여 신뢰할 수 없고 잘난 척하며 이기적이고 남을 무시하며 말과 행동이 이상하고 눈치가 없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보면 일관되게 가해집단의 폭력성을 논하고 있으나, 이 집단은 이런 행동 특성에 반해서 자신들에 대한 비교적 긍정적인 자기 개념을 소유할 뿐 아니라 자신들을 지지해주는 소수의 또래관계도 유지하고 있고 사회적 수용력도 높았다(이춘재, 곽금주, 2000). 그래서 일반 학생들과의 차이가 분명하지 못한 점이 있다(Olweus, 1978; Pulkinen & Tremblay, 1992; Slee & Rigby, 1993). 그리고 일반적으로 따돌림 가해자의 공격행동에 대한 결과 이외에 피해자들의 공격행동도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이춘재, 곽금주, 2000; Bierman, Smoot, Aumiller, 1993; Zarkrisky & Coie, 1996). 이런 결과들은 각 집단 유형 구분과 공격행동의 내용적 차이를 세분화하는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전에 진행되어온 연구들은 일관되게 또래 따돌림의 피해를 실증하는 결과를 보고해 오고 있고 더불어 이런 행동이 발생하는 데 개입한 가해자 및 피해자 모두의 심리적 안녕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중재 프로그램이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심리사회적 능력을 개선하는 내용보다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행동 특성에 초점을 맞춘 구체적인 내용의 개선 방안이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따돌림 행동이 일어나는 집단 내 유형을 좀더 세분화시켜서 이들 간의 심리사회적 발달수준과 정서 및 행동 부적응 양상의 차이를 분석하여 불분명한 집단간 차이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따돌림 유형 구분에 보다 객관적 기준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따랐다. 공격행동에 대한

방어적 반응에 따른 오류를 축소하기 위해 자기보고 평가에 덧붙여 또래에 의한 평가를 병행하여 또래 따돌림 관계에 속한 가해, 피해 집단 구분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이런 내용과 절차를 통해 지금까지 논의된 집단 따돌림 행동 유형을 경험적으로 세분화하고 이 집단 간 특성들을 확인해봄으로써 집단따돌림 현상의 원인과 심리적 중재에 대한 좀더 심층적인 이해를 하고자 하였다.

### 방 법

#### 조사대상자

1999년 3월부터 1999년 7월까지 두 번에 걸쳐 서울 시내 전역에 소재한 초등학교 10개교에서 610명(4학년년부터 6학년)과 중학교 6개교에서 602명(1학년) 남녀 학생 1212명을 조사하였다. 1차 조사 자료 중에서 자기보고식 행동 평가 결과와 또래 평가에서 2가지 집단 구분 과정에서 일관되게 동일한 따돌림 집단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된 450명을 분석대상으로 삼

았다.

#### 측정도구

##### 1) 또래 따돌림 유형 분류를 위한 측정

Neary와 Joseph(1994)의 집단 괴롭힘 행동 척도(Bullying-Behavior Scale)와 Callahan과 Joseph(1996)의 또래 괴롭힘 척도 (Peer-Victimizat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자기보고형으로 12개 문항에 '절대 그렇지 않다(1점)에서 '자주 그렇다(5점)'로 답한 결과를 이용하여 총점의 평균치(가해행동 성향 평균-1.83 / 피해행동 성향 평균 -1.67)를 기준으로(Austin & Joseph, 1996; 이춘재 등, 1999; 이민아, 1999) 집단 구분을 하였다. 가해(평균 이상의 가해 행동에 참여함), 피해(평균 이상의 피해 행동을 당함), 가해/피해(가해행동과 피해 행동 모두를 평균 이상으로 함), 비교 집단(가해 및 피해 행동에서 평균 미만의 행동을 보임)으로 분류하였다. 척도의 이전 신뢰도(Cronbach  $\alpha$ )는 .75였고 본 연구에서는 .74였다.

또한 각 학급 내에서 3가지 유형의 따돌림 행동(신체적 공격행동, 금품갈취 행동, 무시하거나 욕하는 행동)에 대해 또래거명을 실시하여 2번 이상 거명된 학

표 1 학년별 따돌림 집단 구분표

	가해	가해/피해	피해	비교	전체
4학년	6(26) 2.72(11.82)	7(13) 3.18(5.91)	3(19) 1.37(8.64)	27 (162) 12.27(73.64)	43(220) 19.55(100.00)
5학년	0(14) 0.0(6.90)	8(12) 3.94(5.91)	4(15) 1.97(7.39)	18(162) 8.87(79.80)	30(203) 14.78(100.00)
6학년	7(27) 3.74(14.44)	3(13) 1.60(6.95)	5(14) 2.67(7.49)	43(133) 22.98(71.12)	58(187) 31.05(100.00)
중1학년	15(57) 2.49(9.47)	4(13) 0.66(2.16)	9(30) 1.50(4.98)	292(502) 48.5(83.39)	320(602) 53.16(100.00)
전체	28(124) 2.31(10.23)	22(51) 1.82(4.21)	21(78) 1.73(6.44)	380(959) 31.35(79.13)	451(1212) 37.21(100.00)

( )는 자기보고에 의한 집단 분류/ 윗줄-사례수, 아랫줄-%

생들을 대상으로 위와 동일하게 가해(가해자로 2회 이상 거명됨), 피해(피해자로 2회 이상 거명됨), 가해/피해(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2회 이상 거명됨), 비교집단(거명된 적이 없음)을 구분하였다. 두 방법을 통해 모두 동일한 따돌림 유형 집단에 속한 조사대상자 450명 만을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따돌림 행동유형에 대한 자기보고식 평가와 또래 평가 기준 모두에 근거해서 분류한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두 기준에 모두 일치하는 사례수는 자기 보고 평가에 의한 사례수 보다 전반적으로 1/2 ~ 1/5 정도로 줄어들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두 개의 평가도구에 의한 결과가 일치하는 가해집단(2.31%), 피해 집단(1.73%), 가해/피해 집단(1.82%)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포함되지 않는 비교집단(31.35%)이었다. 각 집단에 포함되는 학생들의 비율은 저학년에 비해 고학년이 될 수록 비교집단이 높아지고 다른 집단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2) 심리사회적 발달 측정

Petersen (1984)의 아동 및 청소년용 자아개념 척도

(Self-Image Questionnaire for Young Adolescents : SIQYA) 를 사용 하였다 (이춘재, 1991; 김인경, 1994). 척도의 하위 9개 영역 중 4개 영역 신체상(body image; 11문항), 대처능력(mastery & coping; 10문항), 친구관계(peer relationship; 10문항), 가족관계(family relationship; 17문항)에 관한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Rosenberg (1965)의 자아존중감(self-esteem; 10문항) 척도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정도를 함께 측정하였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63에서 .93이었고 본 자료에서는 .90이었다.

3) 정서적 및 행동적 적응 평가

정서적 문제와 부적응적 행동을 확인하고자 Achenbach (1991)의 아동용 행동조사표 (Child Behavior Checklist: CBCL)을 표준화한 K-CBCL 하위 척도 중 위축, 신체화, 우울/불안, 공격성, 미성숙 척도 내용을 자기보고 형식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위축(withdrawal; 9문항), 신체화(somatization; 9문항), 우울/불안(depression / anxiety; 17문항) 영역을 내현적 행동 문제로, 공격성(aggression; 19문항) 하위 영역을 외현적 행동문제로 나누어 해석하였다. 그리고 공격성 영역은 공격의 형

표 2 각 변인의 발달적 차이

	4학년	5학년	6학년	중 1학년
CBCL(전체)	1.89 (.42) <sup>ab</sup>	1.86 (.40) <sup>ab</sup>	1.94 (.37) <sup>a</sup>	1.85 (.38) <sup>b</sup>
위축	1.89 (.55)	1.85 (.51)	1.95 (.49)	1.87 (.50)
신체증상	1.72 (.58)	1.72 (.58)	1.79 (.53)	1.74 (.51)
우울/불안	2.00 (.55)	1.92 (.54)	2.02 (.51)	1.93 (.51)
미성숙	1.79 (.54)	1.76 (.51)	1.80 (.46)	1.72 (.47)
공격성	1.92 (.50) <sup>ab</sup>	1.92 (.46) <sup>ab</sup>	1.99 (.44) <sup>a</sup>	1.86 (.42) <sup>b</sup>
통제력부족행동	2.17 (.64)	2.15 (.62)	2.27 (.58)	2.16 (.56)
과시우월적공격	2.13 (.73) <sup>ab</sup>	2.17 (.74) <sup>a</sup>	2.18 (.74) <sup>a</sup>	2.02 (.67) <sup>b</sup>
신체적공격	1.60 (.51) <sup>ab</sup>	1.60 (.48) <sup>ab</sup>	1.63 (.47) <sup>a</sup>	1.51 (.43) <sup>b</sup>
SIQYA	2.97 (.41) <sup>ac</sup>	3.01 (.37) <sup>a</sup>	2.87 (.39) <sup>b</sup>	2.91 (.38) <sup>bc</sup>
신체상	2.77 (.56) <sup>a</sup>	2.75 (.53) <sup>ac</sup>	2.62 (.51) <sup>bc</sup>	2.64 (.49) <sup>b</sup>
대처능력	2.95 (.57) <sup>ac</sup>	3.03 (.49) <sup>a</sup>	2.89 (.51) <sup>bc</sup>	2.92 (.52) <sup>bc</sup>
또래관계	2.83 (.49) <sup>a</sup>	2.95 (.43) <sup>b</sup>	2.87 (.43) <sup>ab</sup>	2.96 (.43) <sup>b</sup>
가족관계	3.18 (.44) <sup>a</sup>	3.16 (.40) <sup>a</sup>	3.00 (.47) <sup>b</sup>	3.04 (.43) <sup>b</sup>
자아존중감	3.01 (.59) <sup>ab</sup>	3.07 (.55) <sup>a</sup>	2.89 (.55) <sup>b</sup>	2.91 (.55) <sup>b</sup>

적어도 1개 이상의 같은 첨자를 가지고 있는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태와 내용을 중심으로 요인분석한 결과, 통제력 부족 행동(8문항), 과시우월적 행동(7문항) 그리고 신체 공격행동(4문항)의 3개 요소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이전 연구에서 .65에서 .97이었고 본 자료에서는 .92이었다.

결 과

1) 각 변인들의 발달적 차이

심리 사회적 측정치의 발달적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에 있다. CBCL전체 점수  $F(3,1208) = 3.00, p < .05$ 와 공격성 점수  $F(3,1208) = 4.005, p < .01$ 에서 6학년이 중학 1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공격성향을 보였다. 그리고 SIQYA의 전체 점수는 4, 5학년에 비해 6학년과 중학 1년생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척도 중, 신체상  $F(3,1208) = 5.383, p < .001$ , 대처능력  $F(3,1208) = 2.970, p < .05$ , 가족관계  $F(3,1208) = 9.857, p < .001$ 와 자아존중감 척도  $F(3,1208) = 5.519, p < .001$  전반에서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생들이 4-5학년생에 비해 부정적인 자기 지각을 보여 사춘기의 변화를 엿보게 하였다. 또래관계  $F(3,1208) = 5.364, p < .001$ 에서는 4학년생과 중학 1년생 간에 차이를 보였다.

2) 따돌림 행동유형에 따른 공격행동의 내용

따돌림 행동 유형간 공격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CBCL의 공격성 하위척도 문항을 요인분석하여 3 가지 내용의 공격행동으로 구분하였다. 표 3에서 보듯이 신체적 공격(때리고 괴롭히고 위협하는 행동)은 가해 집단과 가해/피해 집단 순으로 많이 하고 있는 반면  $F(3,447) = 77.925, p < .001$ , 과시적 우월적 공격(허풍스럽고 관심 끌려고 으스스한 행동,  $F(3,447) = 8.479, p < .001$ 은 가해/피해 집단에서 두드러졌고, 비교 집단이 상대적으로 그 성향이 적었다. 통제력 부족행동(기본변화가 심하고 고집세우고 샘내고 고함지르고 성질 부리고 말다툼하는 행동,  $F(3,447) = 12.907, p < .001$ 은 가해/피해집단, 가해집단, 피해집단, 비교집단 순으로 그 성향이 적어졌다.

표 3 따돌림 행동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 특성

	가 해	가해/피해	피 해	비 교
CBCL(전체)	2.03 (.27) <sup>a</sup>	2.35 (.51) <sup>b</sup>	2.14 (.32) <sup>ab</sup>	1.78 (.35) <sup>c</sup>
위축	1.94 (.36) <sup>ac</sup>	2.34 (.57) <sup>b</sup>	2.19 (.47) <sup>ac</sup>	1.85 (.51) <sup>c</sup>
신체증상	1.56 (.36) <sup>a</sup>	2.03 (.68) <sup>b</sup>	2.00 (.59) <sup>b</sup>	1.68 (.49) <sup>a</sup>
우울/불안	2.03 (.41) <sup>a</sup>	2.49 (.63) <sup>b</sup>	2.40 (.50) <sup>b</sup>	1.89 (.48) <sup>a</sup>
미성숙	1.80 (.44) <sup>a</sup>	2.29 (.65) <sup>b</sup>	2.21 (.53) <sup>b</sup>	1.68 (.43) <sup>a</sup>
공격성	2.36 (.41) <sup>a</sup>	2.42 (.56) <sup>a</sup>	1.95 (.37) <sup>b</sup>	1.75 (.39) <sup>b</sup>
통제력부족행동	2.49 (.56) <sup>a</sup>	2.63 (.63) <sup>a</sup>	2.28 (.55) <sup>ab</sup>	2.05 (.54) <sup>b</sup>
과시우월적공격	2.21 (.69) <sup>ab</sup>	2.61 (.75) <sup>a</sup>	2.29 (.85) <sup>ab</sup>	1.95 (.67) <sup>b</sup>
신체적공격	2.28 (.47) <sup>a</sup>	2.14 (.60) <sup>a</sup>	1.50 (.34) <sup>b</sup>	1.38 (.34) <sup>b</sup>
SIQYA	2.87 (.31) <sup>ac</sup>	2.56 (.39) <sup>b</sup>	2.63 (.41) <sup>ab</sup>	2.94 (.37) <sup>c</sup>
신체상	2.72 (.40) <sup>ab</sup>	2.46 (.38) <sup>ac</sup>	2.32 (.58) <sup>bc</sup>	2.66 (.50) <sup>a</sup>
대처능력	2.96 (.44) <sup>ac</sup>	2.66 (.45) <sup>bc</sup>	2.55 (.64) <sup>b</sup>	2.95 (.51) <sup>a</sup>
또래관계	2.98 (.46) <sup>a</sup>	2.58 (.59) <sup>b</sup>	2.54 (.36) <sup>b</sup>	2.94 (.43) <sup>a</sup>
가족관계	2.90 (.38) <sup>ab</sup>	2.59 (.41) <sup>a</sup>	2.89 (.54) <sup>ab</sup>	3.09 (.42) <sup>b</sup>
자아존중감	2.79 (.52) <sup>ab</sup>	2.52 (.75) <sup>a</sup>	2.63 (.60) <sup>a</sup>	2.98 (.54) <sup>b</sup>

적어도 1개 이상의 같은 첨자를 가지고 있는 집단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3) 따돌림 행동유형에 따른 정서 및 행동 상의 부적응 양상

각 유형에 따른 정서 및 행동 상의 부적응 양상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CBCL에서 공격성향은 가해/피해, 가해, 피해, 비교 집단 순으로 나타났다  $F(3,447) = 37.863, p < .001$ . 이를 제외한 위축행동  $F(3,447) = 9.306, p < .001$ , 우울 및 불안  $F(3,447) = 17.556, p < .001$ , 미성숙  $F(3,447) = 20.700, p < .001$  영역에서는 가해/피해 집단과 피해 집단이 가해집단과 비교집단에 비해 부적응적 이었다. 신체화 증상에서는 가해/피해, 피해 집단, 비교집단, 가해 집단 순으로 그 경향이 점차 낮았다  $F(3,447) = 6.653, p < .001$ .

4) 따돌림 행동유형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신체상  $F(3,447) = 4.346, p < .01$ , 대처능력  $F(3,447) = 6.100, p < .001$ , 또래관계  $F(3,447) = 8.060, p < .001$ 에서 가해/피해집단과 피해집단이 비교집단과 가해집단에 비해 취약하였는 반면, 가족관계는 가해/피해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F(3,447) = 12.256, p < .001$ . 그리고 자아존중감은 비교집단이 가장 높고 가해, 피해, 가해/피해 집단 순으로 낮았다  $F(3,447) = 8.065, p < .001$ .

논 의

본 연구 결과 및 이에 기초한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최근 또래 따돌림의 정의 (Heinemann, 1973 ; Smith & Sharp, 1994; Olweus, 1984, 1994) 가 학문적 용어로 정착되고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구분을 넘어 보다 세분화된 구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Dubow, 1988; French, 1988; Dodge & Coie, 1987; Asher, Parkhurst, Hymel & Williams, 1990; Bierman, Smoot, Aumiller, 1993; Zarkrisky & Coie, 1996). 본 연구에서는 가해집단의 심리적 속성이 일반집단과 비교할 때 긍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집단

도 가해집단 만큼 공격행동이 높다는 결과에 초점을 두어 각 집단을 보다 자세히 구분하여 집단의 차별적인 특성을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측정방법에서도 자기보고식과 또래보고식의 두 가지 평가를 동시에 고려하여 보다 타당한 집단구분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결과, 각 집단을 구분할 때 자기보고 평가와 또래보고 평가의 일치하는 정도가 연령이 낮아질수록 일치율이 떨어졌다. 이는 어린 학생들의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지각 능력이 미숙하다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교사나 훈련된 관찰자 등의 제 3자의 평가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존의 관념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가해 및 피해 집단 모두에서 비교집단에 비해서 높은 공격성향을 보였는데, 이 결과는 최근 몇몇 연구와도 일치하고 있다(이춘재, 광금주, 2000). 그래서 각 집단의 공격행동의 내용을 자세히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가해집단은 직접적이고 신체적인 공격을 많이 하는 반면, 가해/피해집단은 자기통제가 부족하고 과시적인 행동을 가장 많이 보여 이들이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하고 미성숙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피해집단은 신체적 공격은 적은 편이나 자기통제가 부족하고 과시적인 행동 등 미성숙한 면을 보이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가해 및 피해 집단의 공격행동에는 내용의 차이 (Bierman, Smoot, Aumiller, 1993; Rubin, Lemare & Lollis, 1990)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또래 따돌림에 관여하는 가해 및 피해 집단 모두 합리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하여 신체적 힘이나 반사회적 행동을 하거나 미성숙한 (Bierman, Smoot, Aumiller, 1993) 태도에 더 의존하고 있어, 이로 인해 문제해결 상황에서 공격적이거나 폭력적 행동 수단에 더 자주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각 집단의 심리적, 행동적 적응 수준을 살펴보면, 비교집단이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외적으로 가해 집단이 공격행동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자존감과 정서 및 행동적응성 그리고 심리사회적 발달에서 긍정적인 자기개념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공격행위자가 또래로부터 소외되고 그 결과 학교 부적응아가 된다는 단순한 가설 (Kupersmidt, Coie & Dodge, 1990; Parker & Asher,

1987)은 다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이들의 행동이 정당성을 갖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 3명의 또래관계를 통해 소속감을 유지하고 있다는 연구들 (Boulton & Smith, 1994; Hoover & Hazler, 1991)에 대한 또 다른 설명으로 최근 주장되고 있는 ‘관계내 공격(relational aggression)’의 존재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Crick & Grotpeter, 1995; Crick, 1996; Grotpeter & Crick, 1996). 이는 직접적인 공격행위가 아닌 또래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변환하는 과정 내에서 발생하는 행위로서 예를 들면, 의도적으로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제 3자를 조정하거나 방관하거나 묵인하는 행동에서부터 의도적으로 이상한 소문을 내서 특정인이 또래 집단으로부터 거부당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이 관계내 공격행동은 특히 여아들의 또래관계에서 더 자주 발생하는데 (Crick & Grotpeter, 1995), 이런 따돌림 경험의 피해자들은 다른 또래 관계에서도 고독감, 우울, 소외 등을 자주 경험하는 등 적응적 문제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관계내 공격을 가하는 가해자는 그들의 행동이 의도적 부당함을 가지고 있으나 이런 행동을 하기 위한 사회적 능력과 또래로부터의 인기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또래 따돌림의 가해자들의 공격행위 속성에는 이런 측면이 포함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다. 가해집단의 공격행동과 일반적 공격행동자의 차이를 구분해 볼 것을 시사하는 이춘재 등(2000)의 연구에 덧붙여 후속 연구자들은 또래 따돌림 과정의 구체적 공격행동의 내용에 이 관계내 공격행동을 포함시키고 이들의 다른 심리사회적 속성의 차이를 세분해 볼 필요가 있겠다.

반면 피해집단은 정서 및 행동 부적응과 심리사회적 발달수준도 떨어지고 자존감이 낮아 전형적인 적응상 문제를 경험할 수 있는 미성숙한 집단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가해/피해집단의 경우는 심리적 사회적으로 가장 위태로운 집단으로 여겨진다. 이들은 가해집단 만큼 공격행동을 보이면서 동시에 공격의 피해 대상이 되며, 자존감과 정서 및 행동 부적응이 피해집단보다 더 심하고, 심리사회적 발달도 피해집단 만큼 낮고, 특히 가족관계는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취약했다. 일본내의 또래 따돌림 현황을 보면 사

회 및 경제의 변화와 가족 및 가정 기능의 변화도 또래 따돌림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다쿠마 다케도시, 1999). 도시화와 고학력, 여성의 사회진출과 가족 성원의 감소, 이혼의 증가로 부모와 자식 간의 공유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방치되는 아이들이 증가하는 점 등의 환경적 문제가 또 다른 중요 변수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일차적 인간관계(가족관계)를 불안정하게 경험하고 있어서 대인관계 능력을 키우기 힘들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가해/피해 집단은 비효율적인 공격 행동이나 말다툼, 방해 등의 외현적 문제행동과 사회적 미성숙 등을 함께 가진 불안정한 개인들로서 피해집단에 비해 처한 상황과 인간관계의 특성, 규범, 등과 같은 요인이 달라짐에 따라 따돌림 행동 유형 내의 지위가 가변적일 가능성이 가장 큰 집단으로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이런 결과는 아동의 공격성향 자체가 또래의 따돌림 대상이 된다고보다는 가해/피해 집단처럼 부주의하고 충동적이고 미숙하며 동시에 공격적인 아동이 따돌림을 당할 위험한 지위에 해당한다는 연구들(Stormshak, Bierman, Bruschi, Dodge, & Coie, 1999; Asher, Parkhurst, Hymel & Williams, 1990; Bierman, Smoot, Aumiller, 1993; Zarkrski & Coie, 1996)을 지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또래 집단의 따돌림과 관련된 다양한 심리사회적 위험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학교상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집단 따돌림 현상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와 이에 대한 예방적인 차원의 접근 및 이후 적응 증진을 위한 심리적 증재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즉, 또래 따돌림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은 따돌림의 각 유형별로 실시되어야 하며, 예를 들어, 가해집단에게는 감정이입과 합리적 문제해결 방법 습득, 폭력행동 감소 등을 내용으로, 피해집단은 자기 주장 표현과 자기 효능감 증가 등을 내용으로, 그리고 가해/피해 집단은 합리적인 문제해결 방법 습득과 충동조절 및 긍정적인 자기상 습득 등으로 차별화되고 개인차에 초점을 둔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아동들이 겪었던 부정



적인 경험이 지속적으로 남아있게 되는 과정을 살펴서, 이들에게 또래관계에서 자신이 수용되고 또래관계 형성 및 유지에 자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기대 혹은 신념을 갖게 하는 대인관계와 관련된 자기 효능감(self-efficacy)을 키워 주어야 한다.

아동의 사회인지 능력은 또래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여러 상황에서 순간 순간마다 또래와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아동의 사회 인지적 정보 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Dodge, & Feldman, 1990). 일반적으로 비인기 아동은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내적 단서(자신과 타인의 감정, 의도, 욕구, 기대, 등등)를 해석하는데 무능력하거나 둔감하다. 아동의 사회적 기술의 향상으로 사회적 관계에서 상황과 상대에 대한 내적 단서를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 타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기본 능력을 갖추게 한다.

뿐만 아니라 아동들은 가족 내의 부모 자녀 관계에서 기본적인 사회적 행동을 배운다. 부모의 개인적 특성, 양육태도와 훈육특성, 유아기의 부모와의 애착 관계 등이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관련이 있다(Putallaz & Heflin, 1990). 부모의 애정과 적절한 통제는 아동이 사회적 유능감을 발달시키고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모교육을 통해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민감하고 반응적이며 관심을 표현하고, 민주적이고 설득적인 훈육 방법을 익혀서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을 키우는데 일조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부모의 특성은 교사에게도 적용된다. 부모와 교사의 이와 같은 특성은 아동의 사회적 행동의 중요한 역할모델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인경 (1994). 청소년기 자아중심성과 관련된 변인연구-가족관계, 분리개별화 및 자아개념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인규 (1996). 때리는 아이, 맞는 아이.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서. 청소년대화의 광장.
- 다꾸마 다케도시 (1999). 학교내 폭력과 그 대응에 대해서. 왕따,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 일본 동경제국대학 T. Takuma 교수 초청 한, 일 학술대회 초록집. 1-14.
- 박경숙, 손희권, 손혜정 (1998). 학생의 왕따(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 RR 98-19.
- 이민아 (1998). 초등학생의 집단 괴롭힘 개입 유형과 심리적 특성의 관계 - 자아존중감, 우울, 불안을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이춘재 (199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성심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논집, 11, 29-45.
- 이춘재, 광금주 (1999).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연구 : 실태, 특성 및 대책. 서울: 집문당.
- 이춘재, 광금주 (2000). 집단 따돌림 경험 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사회적 지지,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3(1), 65-80.
- 이훈구 (1999). 학교폭력: 그 현황과 대책. 사회문제와 심리학. 서울 법문사.(PP69-118)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 of Vermont.
- Asher, S. R. (1990). Recent advances in the study of peer rejection, In Steven R. Asher & John D. Coie (ed.) *Peer Rejection in Childhood*. N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 Boulton, M.J., & Smith, P.K. (1994). Bully / victim problems in middle school children: stability, self-perceived competence, peer perceptions, and peer acceptance.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2
- Bukowski, W.M., & Hoza, B. (1989). Popularity and friendship : Issues in theory, measurement and outcome. In T.J. Berndt & G.W. Ladd (ed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pp. 15-45). New York: Wiley.
- Callaghan, S., & Joseph, S. (1995). Self-concept and peer victimization among schoolchildren. *Personality*

-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1), 161 - 163.
- Coie, J. D. (1990). Toward a theory of peer rejection, In Steven R. Asher & John D. Coie (ed.) *Peer Rejection in Childhood*. New York :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 Coie, J.D., & Dodge, K.A. (1989). Continuities and changes in children's social status: A five-year longitudinal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29, 261-281.
- Coie, J. D., Dodge, K. A., & Kupersmidt, J. B. (1990). Peer group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Steven R. Asher & John D. Coie (ed.) *Peer Rejection in Childhood*. N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 Crick, N. R. (1996). The role of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and behavior in the prediction of children's future soci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2317-2327.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 - 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Dodge, K., & Coie, J. D. (1987). Social-information 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1146-1158.
- Dodge, K. A., & Feldman, E. (1990). Issues in social cognition and sociometric status, In Steven R. Asher & John D. Coie (ed.) *Peer Rejection in Childhood*. New York :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 French, D. C. (1988). Heterogeneity of peer-rejected girls. *Child Development*, 61, 2028-2031.
- Gottman, J.M.(1977). Toward a definition of social isolation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48, 513-517.
- Greshman, F.M. (1988). Social competence and motivational characteristics of learning disabled students. In M.C. Wang, M.C. Reynolds, & H.J. Walberg (Eds.), *Handbook of special education: Research and practice (Vol.2 pp. 283-302)*. Oxford: Pergamon.
- Grotpeter, J. K. & Crick, N. R. (1995). Relational aggression, overt aggression, and friendship, *Child Development*, 67, 2328-2338.
- Hartup, W.W., Glazer, J.A., & Charlesworth, R. (1967). Peer reinforcement and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38, 1017-1024.
- Heinemann, P. (1973). *Mobbing*. Oslo: Gyldendal.
- Henker, B., & Whalen, C.K. (1989). Hyperactivity and attention deficits. *American Psychologist*, 44, 216-223.
- Hoover, J., Oliver, R., & Hazler, R. J. (1992). Bullying : Perceptions of adolescent victims in the midwestern USA.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13, 5-16.
- Hoover, J., & Hazler, R. J. (1991). Bullies and victims. *Elementary School Guidance and counseling*, 25, 212-219.
- Hymel, S., & Asher, S.R. (1977). *Assessment and training of isolates children's social skills*.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New Orleans.
- Kupersmidt, J. B., & Coie, J. D. (1985). *The prediction of delinquency and school-related problems from childhood peer status*. Unpublished manuscript, Duke University, Durham
- Kupersmidt, J. B., Coie, J. D., & Dodge, K. A. (1990). The role of poor peer relationships in the development of disorder, In Steven R. Asher & John D. Coie(ed.) *Peer Rejection in Childhood*. New York :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 Magnusson, D., Stattin, H., & Duner, A. (1983). Aggression and criminality in a longitudinal perspective. In K.T. Van Dusen & S.A. Mendnick (Eds.), *Prospective studies of crime and delinquency*. Boston: Kluwer- Nijhoff.
- Neary, A., & Joseph, S. (1994). Peer victimization and its relationship to self-concept and depression among schoolchildre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 183-186.

- Newcomb, A.F., & Bukowski, W.M. (1984). A longitudinal study of the utility of social preference and social impact sociometric classification schemes, *Child Development*, 55, 1434-1447.
- Olweus, D. (1994). Annotation: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1171-1190.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s :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Oxford: Blackwell.
- Olweus, D. (1984). Aggressors and their victims: Bullying at school. In N. Frude & H. Gault (Eds.), *Disruptive behavior in schools*. New York: Wiley.
- Olweus, D. (1978). *Aggression in the school : Bullies and whipping boys*. Washington, DC : Hemisphere.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Petersen, A.C. (1984). A self-image questionnaire for young adolescents (SIQYA) : reliability and validity studi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2), 93-111.
- Pulkkinen, L., & Trembly, R.E. (1992). Pattern of boys' social adjustment in two cultures and at different ages : A longitudinal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5, 527-553.
- Putallaz, M. & Heflin, A. H. (1990). Parent-child interaction, In Steven R. Asher & John D. Coie(ed.) *Peer Rejection in Childhood*. New York :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 Putallaz, M., & Wasserman, A. (1990). Children's entry behavior, In Steven R. Asher & John D. Coie(ed.) *Peer Rejection in Childhood*. New York :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 Ro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bin, K.H., LeMare, L., & Lollis, S. (1990). Social withdrawal in childhood: Developmental pathways to peer rejection.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217-25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lee, P, T., & Rigby, K. (1993). Australian school children's self appraisal of interpersonal relations : The bullying experience. *Child Psychology and Human Development*, 23(4), 273-282.
- Smith, P. K., & Sharp, S.(eds.) (1994). *School Bullying- Insights and Perspectives*. London, Routledge.
- Stormshak, E.A., Bierman, K.L., Bruschi C., Dodge, K.A., Coie, J.D., & the Conduct Problems Prevention Research Group (1999). The relation Between behavior problems and peer preference in different classroom contexts. *Child Development*, 70, 169-182.
- Taylor, A.R., Asher. S.R., & Williams, G. A. (1987). The social adao misrea mildly retard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58, 1321-1334.
- Zakriski, A. L., & Coie, J. D. (1996). A comparison of aggressive-rejected and non aggressive-rejected children's interpretations of self-directed and other-directed rejection. *Child Development*, 67, 1048-1070.

1차 원고 접수 : 2000년 6월 13일  
 최종 원고 접수 : 2000년 7월 29일

## The Bullying and Psychosocial Dysfunction

Jongchul Han and Inkyung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was directed to explore the levels of psycho-social development, and emotion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manifested by those who are involved in bullying at school. For 450 out of 1212 students of the 4th to 7th grade, self ratings were congruent with peer nominations in status for school bullying and so further analyses were based on their data. The participants were partitioned into four groups (bully, victim, bully/victim, and comparison group) and completed the Self-Image Questionnaire for Young Adolescents and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Results indicated that the comparison group reached the higher level of psycho-social development than the other three groups. However, the bully group had somewhat self-esteem, whereas the victim and the bully/victim group had typical dysfunctional problems. In particular, the worst bully/victim group formed very derogatory family relationships. Finally, the bully group manifested physical aggressions and the victim group related to a lack of self-control and show-off behavior. These results suggest that different service programs should be required for different groups.